

# 유일호 “협력 강화로 리스크 대응”

###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대비할 것”... 금융계에는 ‘리스크 관리’ 당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올해 재정 및 통화, 금융감독 당국 간의 정책협력체제를 한층 강화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민생을 돌보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새해 우리경제의 위기요인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새해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다. 소비, 건설 등 내수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과 지역경제 위축도 우려된다”며 “글로벌 공급과잉, 후발국 추격에 따라 우리 주력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가야 하는 부담도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글로벌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세계적인 달러 유통성의 축소, 유럽은행부실, 유럽연합(EU) 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언제라도 확대될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정책 변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부총리는 경제 당국들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근본적 변화에도 확실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식용유 대란 조짐 경기 침체에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까지 겹치며 지난해 날미에서 출수가 크게 나 식용유의 원료인 콩 수입량이 줄어든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식용유를 정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불확실하다는 것만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금년의 여건 하에서 금융인 여러분의 섬세한 준비와 담대한 실행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금융계에 당부의 말을 건넸다.

그는 “첫째는 리스크 관리다.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면서 적기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는 동반자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금리상승, 구조조정 본격화로 여로 분야에서 금융 애로가 예상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새로운 산업에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에 소홀하지도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왜곡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첫 걸음이 임금의 공정성과 신축성에 있다고 본다”며 “성과중심 근로문화 확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헬로모바일 “잔여 데이터만큼 다음달 통신비 할인”

CT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이 쓰고 남은 데이터만큼 다음달 통신비를 깎아주는 요금제 ‘착한 페이백 데이터’를 3일 선보였다.

이 요금제는 잔여 데이터 분량의 요금을 다음달 통신비에서 할인해준다. 약정보다 데이터를 많이 쓰더라도 초과 사용료가 반값에 제정된다.

헬로모바일 자체 통계에 따르면 고객 10명 중 7명은 주어진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긴 평균 데이터량은 제공량의 48.9%에 달했다.

정재욱 헬로모바일 상품기획 팀장은 “착한 페이백 데이터 유심 요금제는 매달 남는 데이터가 불만인 고객에 주목한 맞춤형 요금제”라며 “시장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심요금제뿐 아니라 단말기와 결합한 페이백 데이터 요금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초불확실성 시대... 금융·외환시장 영향”

### 이주열 총재, “금융·외환시장 불안정하면 금융불균형 부작용 현재화될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일 ‘초(超)불확실성 시대’에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릴 경우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 금융·외환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인권의 여건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해 ‘초(超)불확실성 시대’라는 용어가 생겨났듯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며 “새해에도 지난해 부각됐던 국내·외의 여러 불안요인들이 그대로 온존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오거나 국내 불확실성과 맞물릴 경우, 가계부채 누증 현실화 등 금융·외환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실물경제 회복 지연은 물론,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부작용이 현재화될 수도 있다”며 “따라서 우리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성장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

대될 것으로 예상, 금융안정을 지키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총재는 “정부,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금융안정을 확고히 지키도록 하겠다”며 “올해에는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거시경제의 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출제도 운용 등을 통해 시중자금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과 자금조달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부문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유한회사 재무제표 공개된다

###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카콜라나 루이비통, 맥도날드, 이케아코리아 같은 유한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의무화를 담은 ‘주식회사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회계 감독상 규제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주식회사에 한해서 적용해 온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된다.

또 자산 5000억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이 적용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기준에 매출

액이 추가됐다. 이로써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을 가진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종료 후 4개월에서 45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변경한다.

외계법인의 감사 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감사인이 이사의 범위인 등 부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중 국회에 전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이통사, 전용폰 마케팅 강화

### SK 전용 ‘솔 프라임’ 6일 출시 KT 신용카드 크기 전용폰 나와 LG U+ 전용폰 출시 준비

이동통신사가 전용 스마트폰 마케팅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전용폰은 특정 통신사만 판매하는 모델로 경쟁사로부터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유인책이 된다. 단말은 중저가 보급형이 대부분으로 보조 휴대폰이 필요한 고객을 겨냥한다.

알카텔모바일코리아는 3일 웨라톤그랜드워커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 전용 모델 ‘솔 프라임’을 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알카텔모바일은 프랑스·중국 합작 기업으로 솔 프라임 개발을 맡았다. 구입과 개통은 SK텔레콤에서만 할 수 있다.

솔 프라임의 출고가는 43만3400원으로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20만~3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4GB 메모리, 전후면 각각 800만, 1600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

5.5인치 대형 화면에 전체 핸드폰의 두께는 6.99mm, 무게는 156g다. 국내 출시 5.5인치 대형화면 핸드폰 중 가장 얇고 가볍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음향이 다. 음악을 들을 때 스마트폰 앞면 윈

쪽에 있는 ‘붐키(Boomkey)’를 누르면 음악 장르에 맞춰 소리의 깊이와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통화할 때는 소음을 제거해준다.

알카텔모바일코리아 측은 “솔 프라임의 붐키는 핵심 기능이다. 풍부한 음향 경험을 선사할 뿐 아니라 화음이 꺼진 상황에서 붐키를 연속 2번 누르면 카메라 앵이 자동으로 실행패 사진을 찍어준다”고 설명했다.

KT도 이날 미국 포시 모바일의 ‘마이크로XS240’을 전용폰으로 선보였다. 이 모델은 2.4인치 초소형 액정으로 신용카드 크기만하다. 무게는 52.7g, 후면 200만, 전면 30만 화소를 지원한다. 출고가는 13만2000원으로 3G로만 서비스된다.

KT는 이 모델이 기존 보급형 모델보다 사양은 낮지만 통화량이 많거나 겸용폰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LG유플러스도 연초 출시를 목표로 보급형 전용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초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사실상 단말값이 공짜인 ‘화웨이Y6’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전용폰을 준비하고 있다”며 “출시 시점과 사양은 공개가 가능할 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www.jbbank.co.kr

# Viva 2017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고객님의 2017년 한 해가  
눈부시게 빛나시길 기원합니다